

“형식적 점검으로는 국민 못 지켜… 디지털 인파관리 개발”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크라우드 매니지먼트 중요성 확인
사고 수습·후속 조치, 국정 최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암사 사고와 관련해 “관성적인 대응이나 형식적인 점검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며 드론 등 디지털 역량을 활용한 인파관리 기술 개발 및 제도적 보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산업안전사고, 아울러 지하주차장 화재, 아연 광산 폐몰사고, 항공기 불시착 등 각종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당초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번 사고의 엄중함과 심각성을 고려해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하고 있다.

/뉴스

관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도 국무회의에 참석해 사고와 관련 보고와 함께 향후 대책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하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는 이른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crowd management)’라는 인파 사고의 관리·통제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우리 사회는 인파·군중 관리에 대한 체계적 연구개발이 부족한 실정으로, 드론 등 첨단 디지털역량을 적극 활용해 기술을 개발하고 제도적 보완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번 대형 참사가 발생한 이면 도로뿐만 아니라 군중이 운집하는 경기장, 공연장 등에 대해서도 확실한 인파 관리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행사 주최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조만간 관계 부처 장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개최를 예고하며 관계 부처를 향해 철저한 준비를 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사고의 희생자와 부상자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구조를 위해 애쓴 공직자와 시민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대다수가 아들딸 같은 청년들인데 더욱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며 “부모님들의 심정은 오죽하겠나”라고 밝혔다.

이어 “거듭 강조하지만 국정의 최우선은 본건 사고의 수습과 후속 조치”라

며 “관계 기관에서는 내 기족의 일이라 고 생각하고, 한분한 분 각별하게 챙겨 드리고 유가족을 세심하게 살펴드리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가 애도 기간에 온 국민과 사회 모든 분야가 주요 일정을 취소하고 행사를 자제하는 등 한마음으로 함께해 주고 계신다”며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비롯해 구호와 후송에 애써 주신 시민들, 소방관·경찰관 등 제복입은 공직자들, DMAT(재난의료지원팀)의료진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슬픔을 함께 나누 주신 모든 국민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주석 등 세계 각국 정상들이 깊은 애도의 뜻을 보내 주셨다. 세계 각국 정상과 국민께서 보여주신 따뜻한 위로에 대해 국민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외국인 사상자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과 다름없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시장 안정에 은행권 역할 중요… 적기 대응”

尹, 경제부총리·한은총재 등과 오찬
“조속한 시장 안정 위해 면밀히 점검”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로 불거진 회사채와 단기자금시장의 자금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50조원+α’의 시장안정 조치를 점검하며 정책 감독당국이 책임감을 갖고 적기에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시장 상황을

을 점검하기 위한 오찬을 함께 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부대변인은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지난 10월 2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50조원+α(알파)’ 규모의 유동성 공급대책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후 시장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자금시장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시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달라”며 “시장안정과 취약자주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있어 은행권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금융 리스크, 그리고 대응과 관련해 정책감독당국이 책임감을 갖고 적기에 대응해달라”며 “앞으로도 공식적인 회의뿐 아니라 오늘 오찬과 같이 비공식적인 방식을 통해 수시로 관련사항을 점검하자”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다.

/박정익 기자

민주당, 납품단가연동제 등 당론 채택

“국민의힘, 법안 통과에 의지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1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납품단가연동’, ‘카카오먹통방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총에서 하도급 대금 연동계약서 작성은 의무화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대한 일부법률개정안’,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토록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를 위해 추진하기로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납품단가연동제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경제는 고환율·고금리·고물가 3고 위기 속에서 생산·소비·투자 모두 떨어지는 ‘트리플 다운’까지 이르렀다”며 “엎친데 덮친격으로 김진태 발 위기로 금융시장 꽁꽁 얼어붙으면서 연쇄적 대란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끝없는 악재 속에 중소기업은 이미 한계 다다른지 오래다. 정부는 시간만 끌며 대책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의총 후 여당의 반대에도 납품단가연동제를 밀어붙일 것이라는 질문에 “국회 민생 경제특위가 10월 31일로 활동 기한이 만료됐다. 특위 회의 때도 기류를 보면 납품단가연동제가 시장 논리에 반한다는 발언을 했다”며 “실제로 단체나 중소기업을 만나선 마치 필요한 것처럼 말 하지만 법안 통과에 국민의힘의 의지가 없는 것을 봤다. 고물가와 고유가로 중소기업이 힘들어하고 있는 시점인데,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여당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이 책임있게 정기국회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판교 SK C&C 데이터센터에서 지난 달 15일 발생한 화재로 카카오 플랫폼 서비스가 마비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것과 관련 이른 바 ‘카카오먹통방지법’을 당론으로 결

정했다. 민주당은 데이터센터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일부법률개정안’과 신속한 방송통신재난 복구를 위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데이터센터를 ‘보호 조치 대상’으로 추가하고 보호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완을 시정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일정 요건 이상의 부가통신 사업자를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의 대상으로 추가해 관리하는 내용이다. 방송통신발전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애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이미 발의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한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카카오 먹통 방지법은 화재가 발생한 데이터센터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1일 사용자 100만명 이상, 트래픽 점유율 1% 이상 기업을 재난관리계획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며 “보다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위기)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주한 美대사, 與野 만나 동맹 의지 재확인

정진석 “동맹 토대로 파악 투나잇”
이재명 “IRA 신경 써달라” 부탁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1일 국회를 찾아 여야 대표를 만나며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의지를 되새겼다.

먼저 이날 오전 국민의힘 먼저 찾은 골드버그 대사는 정진석 비상대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북핵 위협에 함께 대응하고자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로 최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북한이 전술핵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고 이야기하고, 언제든지 미국 영토와 한국의 공항과 항구를 타격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파악 투나잇’(Fight Tonight)할 수 있는 준비태세 갖춰나갈 바란다”고 덧붙였다. ‘파악 투나잇’은 ‘당장 전투가 벌어져도 이길 수 있는 전투태세를 갖추는 것’을 뜻하는 미군의 구호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에 “Go Together(같이 갑시다)라는 말로 화답하고 싶다”고 동조했다. ‘같이 갑시다’는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표어로 알려져 있다. 골드버그 대사는 “양국 동맹은 다양한 차원의 협력에 바탕을 두고 있다. 안보 분야도 한 분야고, 한국과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북 확장 악재도 거기에 포함돼 있다”며 “양국 동맹의 다양한 차원의 협력 중 국회와의 소통도 핵심 요소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접견을 마친 후 골드버그 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났다.

이 대표도 “최근에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한미연합전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정진석(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각각 예방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뉴스

그러나 “한미동맹의 강력한 확장 억제력이 지속되는 한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한반도 내에는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도 필요하지 않다고 확신한다”며 “대사님께서도 언급하셨던 것처럼 한반도의 전술핵 배치, 재배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무책임한 얘기는 절대 동의한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서 이 대표는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IRA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도 산업계가 가지고 있는 우려를 해소하는 데 양국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점 때문에 제가 지난달에 미국의 의회 지도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한 일이 있다. 한미동맹의 안정적, 지속적, 포괄적인 발전을 위해서 우리 한국 측의 우려가 합리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대사님께서도 많은 도움 주시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에 “동맹에 걸맞는 정책으로 현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